지역 메아리

김제시, 제1회 추경예산 7462억원으로 확정

김제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총 7,462억원 규모로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213억원(19.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026억원(18.1%)이 증가한 6,697억원, 특별회계는 187억원(32.3%)이 증가한 76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은 지방교부세 379억원, 세외수입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308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 순세계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469억원이다.

특히 민선7기를 맞아 첫 추경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사업,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6억원 △대율저수지 관광사업 20억원 △노후상수도 교체공사 114억원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17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8억원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41억원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21억원 △성산지구지역활력제고사업 13억원 등이다.

/김제=곽노태기자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남자 어르신 · 장애인 세대 행복담은 꾸러미 사업 시작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월부터 특화 사업인 행복담은 꾸러미 사업을 시작하며 나눔 복지 실천에 앞장섰다.

백구면의 행복담은 꾸러미 사업은 혼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독거 남자 어르신, 독거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즉석국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마을 이장, 주민, 협의체 위원들에게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명의 위원과 소외계층 세대가 결연을 맺어 월 1회 7가지의 즉석 식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물품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반찬을 만들기 어려워서 찬물에 밥만 말아먹곤 했는데 이렇게 데워먹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지평선축제, 빅데이터 축제대상 수상

매경 · 축제협회 · 고려대 KT · BC카드 공동실시 '기업상생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18일 서울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 에서 '기업상생 최우수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 18일 서울 매일경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 에서 '기업상생 최우수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매일경제가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고려대 빅데이터 융합사업단, KT, BC카드와 함께 KT빅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분석한 뒤 정성평가를 곁들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축제 15곳을 선정한 결과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세계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자체와 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축제를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업상생 최우수상' 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서의 명성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축제 평가에서 지평선 축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지평선축제 역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수용 공간 및 먹거리를 확충하여 글로벌 육성축제 품격에 맞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최근 실시된 관광객이 뽑은 축제만족도 1위 축제에 등극하였으며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제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추석명절 전 각종 대금 앞당겨 지급

추석전 민생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

김제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 계약대금과 분야별 사업비 등을 추석명절에 신속 집행한다.

김제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사업부서에 추석명절 전 신속 집행 계획을 알리고 부서 담당자들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지출 전 부서에서 선행해야 하는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 했다.

이를 위해 추석명절 대금 지급 건에 대한 기성 · 준공 검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공사업체에 대금을 조기에 청구하도록 독려하고 대가 지급 기한을 5일에서 최대 3일로 앞당기는 등 신속한 집행으로 추석연휴 동안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안상일 회계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종 대금 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으며 명절 전 신속 집행은 업체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 실물 경기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 주간 행사 성료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최근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김제시라는 슬로건 아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고 치매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 '치매 극복주간' 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김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주간 동안 치매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김제 공용 버스터미널, 김제 전통시장, 원평장날, 김제 비사벌 사거리, 시청 종합 민원실, 지평선 아카데미 등에서 치매 극복주간 거리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했다.

핵심 주요 행사로 실내 운동장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복지한마당과 연계하여 치매안심센터 부스를 운영하여 치매3.3.3.수칙 홍보 및 가두캠페인, 페이스페이팅, 치매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약5,00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을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 날' 로 정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건강한 완주푸드로 급식해요"

완주군, 학교 대상 '완주푸드 먹는 날' 시범운영

완주군이 관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로컬푸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날' 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을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 날' 로 정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 날은 완주군에서 생산된 식재료만으로 학생들에게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날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먹게 하고, 농가에게는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요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효율적인 기획생산을 돕는다.

이 같은 시범운영은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완주학교 건강먹거리 연구회' 를 만들어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에게 건강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업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 날 운영이 결정됐다.

현재 봉동초, 봉서초, 삼례초, 상관초, 봉서중, 완주중, 한별고 등 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완주군이 주관하고, 참여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로컬푸드 먹거리의 중요성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이해시키는 한편, 맛 평가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산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먹거리 정의(Justice)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기자

완주중앙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 성료

어린이들의 즐거운 독서경험 통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공모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19일 완주군은 최근 조혜란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2018 책 읽어주세요' 체험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책 읽어주세요' 는 어린이들의 즐거운 독서경험을 통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공모사업이다.

전국 60개 도서관을 선정해 작가와 함께 책읽기, 뮤지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 만들고 그리기 등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은 그림책 <상추씨>, <할머니 어디가요> 시리즈를 쓴 조혜란 작가와 함께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한 박미경(소양면)씨는 "아이에게 자주 읽어주던 그림책 작가를 직접 만나 함께 책을 읽고 체험활동을 진행해 아이에게 즐거운 추억거리가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중복기자